



밭간사

짚! 먼 옛날 이땅에 우리조상들이 터를 잡고 농사를 짓기 시작 했을 때부터 짚은 우리인간과 함께 호흡하면서 인간의 역사만 큼이나 긴 삶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 알곡을 떨어 냈으니 벧짚 따위야 아무렇게나 쌓아도 되련만 우리 조상들은 반드시 차곡차곡 또는 주저리를 썩워 산모양으로 쌓았다. 이는 농사를 잘되게 하고 복을 갖다 주는 산신을 모시려는 마음에서 였다. 그만큼 짚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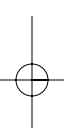
이엉을 엮어 초가지붕을 덮는데, 가축의 일년식량에 비료에 펄감에 곡식을 보관하는 그릇 만드는데, 안쓰이는 곳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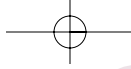
짚을 이용한 생활도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과학적임에 실로 감탄을 금할수 없다.

편리성은 물론 온도조절이며, 습도조절, 공기의 흐름까지를 염두에 둔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가 배여 있다. 그러나 이제 사이버문화, 인터넷시대 디지털등 눈부신 과학문명의 홍수속에서 이제는 배우려는 사람도 가르치려는 사람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에 우리 문화원에서는 특성화 사업으로 짚풀공예를 선정 운영하고, 이제 수료식과 더불어 회원들의 작품을 한권의 도록으로 편찬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단순히 사진만을 찍어 펴낸것이 아닌 마디굵은 어르신들의 땀이 어린 창작품이라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싶다. 작지만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한부분 짚풀문화! 이를 찾아 갈고 빛내는 일 또한 문화원의 할 일이며 우리 후손들의 의무라는 생각에서...

2009. 2월에
남산아래 작은 사무실에서...

온양문화원장 김시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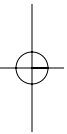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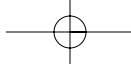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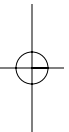
※ 짚풀공예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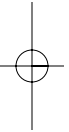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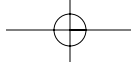
1. 짚신 / 이성옥 아산시 배방면 /	7
2. 둥구미, 씨앗망태기, 멧방석 / 홍성봉 아산시 배방면 /	8
3. 씨오쟁이, 갈대비, 짚신, 주저리 / 김기선 아산시 인주면 /	9
4. 다래끼, 종다래끼, 씨오쟁이 / 강경희 아산시 권곡동 /	10
5. 삼태기, 두트레 방석 / 김영위 아산시 온양5동/강정희 아산시 온천동 /	11
6. 멧방석, 계란꾸러미 / 이성호 아산시 실옥동/이순화 아산시 온천동 /	12
7. 도롱이, 외줄망태기, 짜리비 / 허중 아산시 신창면 /	13
8. 닭둥우리, 수수비, 개집 / 한원택 아산시 인주면 /	14
9. 도래방석, 소신 / 한원택 아산시 인주면 /	15
10. 씨오쟁이, 부리망 / 이철우 아산시 배방면 /	16
11. 종다래끼, 외줄망태기, 씨앗망태기 / 이철우 아산시 배방면 /	17
12. 찌리, 새집, 새탑새기 / 임장순 아산시 권곡동 /	18
13. 도래방석, 삼태기 / 정재학 아산시 방축동 /	19
14. 망태기, 종다래끼 / 신종철 아산시 배방면/이범식 아산시 신창면 /	20
15. 둥구미, 멧방석 / 강영식 아산시 방축동/김인자 아산시 배방면 /	21
16. 지갯등태, 문어 / 김해기 아산시 둔포면 / 구달선 아산시 풍기동 /	22
17. 거미와 거미줄, 여치집 / 이충경 아산시 용화동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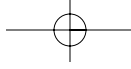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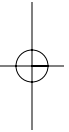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짚풀공예교실	27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수료식	32
✽ 지역 및 전국 축제 체험 및 견학	
1. 지역 축제 체험	34
2. 전주 실버문화 축제 체험	35
3. 짚풀생활사 박물관 견학 및 체험	37
✽ 사진으로 보는 짚과 생활	38
✽ 회원명단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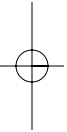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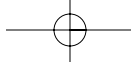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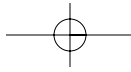




짚풀공예 작품







짚풀공예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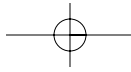
이성옥
67세
아산시배방북수리

▲▼ 짚신

짚신은 짚을 엮어 만든 신으로, 비구, 초리, 초혜(草鞋)라고도 한다. 짚신과 같은 형태의 신발로서 삼(麻)으로 만든 것을 미투리 라한다.

짚 이외에는삼, 칩, 닥껍질로만들기도 한다. 짚신은약해서 열흘을넘기기 어려워러 켈레씩 만들어놓고 신었다.





1. 짚풀공예 회원작품



홍성봉
75세
아산배방면신흥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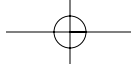
▶▲ **등구미**
짚으로 둥글고 울이 깊게 결어 만든 그릇. 주로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담는 데에 쓴다. 지역에 따라 먹등구미, 메꾸리 등구미라고도 한다.



▲ **씨앗망태기**
씨앗을 담는 그릇. 씨앗망태기는 망태기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크기가 작은 먹등구미에 밀빵을 달아 어깨에 메거나 허리춤에 매고 썼다.



▲ **맷방석**
매통이나 맷돌을 쓸 때 밑에 까는, 짚으로 만든 방석. 명석보다 작고 둥글며 전이 있다. 아산시 짚풀공예 공모전 대상 수상 작품(전통부문)



실버세대와함께하는 짚풀문화



김기선
75세
이산인주면도흥리

◀ 갈대비

갈대로 만든 비, 주로 방이나 마루를 쓸데 사용함.

◀ 짚신

짚신은 짚을 엮어 만든 신으로, 비구, 초리, 초혜(草鞋)라고도 한다. 짚신과같은 형태의 신발로서 삼(麻)으로 만든 것을 '미투리'라 한다. 짚 이외에는 삼, 짚, 닥 껍질로 만들기도 한다. 짚신은 약해서 열흘을 넘기기 어려워 여러 겹레씩 만들어 놓고 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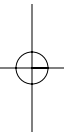
◀ 씨오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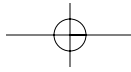
이듬해 심을 씨앗을 담아두는 짚으로 엮은 물건. "끓어 죽어도 씨오쟁이는 베고 죽으랴"는 말이 있다. 아무리 식량사정이 어려워 굶주려도 다음해 심을 볍씨, 씨나락만은 소중히 다룬다는 뜻이다.



▲ 주저리

일정한 양의 벼짚의 끝을 모아 엮어서 무엇을 씌울 수 있도록 만든 물건. 겨울에 꽃나무나 김칫독 위에 덮어 씌워 눈비를 가리며 추위를 막는 데 쓴다





1. 짚 풀 공 예 회 원 작 품



강경희
66세
아산시 권곡동



▲ 다래끼

아카리가 좁고 바닥이 넓은 작은 바구니.
지방에 따라 다라끼 · 다래끼 · 영성(筲簍)이라고도 한다.
남부 지방의 경우는 주로 대[竹]로 만들고, 산간 지방에서는 짜리 · 줍 텅
굴 같은 덩굴성 줄기로 만든다. 짚으로 엮어 만든 것도 있다. 밭에 씨를 뿌
릴 때에 이것에 담아서 뿌리기도 하고, 산나물을 캐거나 고추를 탈 때, 감
자 · 고구마 · 옥수수 등을 거두어 들일 때에도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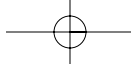
▲ 씨오쟁이

이듬해 심을 씨앗을 담아두는 짚으로 엮은
그릇.



▲ 중다래끼

작은 바구니. 다래끼보다 작으며 양쪽에 끈을 달아
허리에 차거나 멧빵을 달아 어깨에 메기도 한다.



실버세대와함께하는 짚풀문화



김영위
세
아산시온양동

▲ 삼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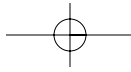
농가에서거름을 줄 때 사용하는 연장. 농가에서는 주로 인분과 재를 섞은 퇴비를담아논·밭에 뿌릴 때 사용하며, 이밖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삼태기는가는 싸리·대오리·쭉·짚·새끼 등으로 엮어 만든다.



강정희
66세
아산시온천동

▲ 두트레 방식

짚으로 엮은 둥글고 두툼한 방식.
김장독을 땅에 묻고 독 뚜껑을 덮은 다음 김치가 얼지 않도록 그 위에 덮어 사용하며, 깔고 앉기도 한다.



1. 짚풀공예 회원작품



이성호
69세
아산시실옥동



▲ 맏방석

매통이나 맏돌을 쓸 때 밑에 까는, 짚으로 만든 방석. 명석보다 작고 동글며전이 있다.
맏방석은 가운데 맏돌을 앉히는 방석이라 하여 이름이 붙여졌으며, 콩이나 곡물 따위를 갈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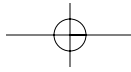


이순화
55세
아산시온천동




▲ 계란꾸러미

짚을 이용해 계란을 담을 때 사용했던 꾸러미.
지금은 플라스틱이나 골판지와 같은 포장용기에 담아서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짚으로 꾸러미를 만들어 계란을 담아 장에 내다 팔았다.



▲ 도롱이
비가 올 때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우장(雨裝)의 하나.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했다. 녹사의(綠蓑衣)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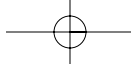
허중
75세
이산산청면수장리



▲ 외줄망태기
새끼 등으로 꼬아 만든 주머니로 물건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데 쓰는 기구.



▲ 쓰리비
싸리의 가지를 묶어 만든 비. 주로 마당비로 사용한다.



1. 짚풀공예 회원작품



한원택
69세
아산인주면도흥리



▶ 수수비

이삭을 떨어진 수수의 줄기로 맨비. 집안 내부보다는 주로 외부 바닥을 쓸 때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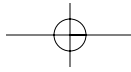
▲ 개 집

짚으로 만든 개집. 두트레 방석 모양으로 엮다가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만든 창작품. 아산시 짚풀공예 공모전 동상수상작품 (창작분야)



▲ 닭둥우리

둥우리로 된 닭의 보금자리. 짚이나 땃싸리 따위로 바구니와 비슷하게 엮어 공중에 다는 닭집이다. 닭이 올라가 알을 낳고 품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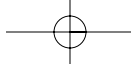
◀ 소신

소가 마차를 끌거나 무거운 짐을 싣고 오랫동안 걸어야 할 때소의 발굽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발에 신기는 짚신이다.



▲ 도래방석

짚으로 둥글게 짠 방석. 주로 곡식을 넣어 말리는데 쓴다 / 아산시 짚풀공예 공모전 동상 수상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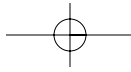
1. 짚풀공예 회원작품



▲ 씨오쟁이
 이듬해 심을 씨앗을 담아두는 그릇.



▲ 부리망
 쟁기를 끄는 소가 곡식이나 풀을 뜯어 먹지 못하게 소입에 씌워주는 물건으로 가는 새끼를 꼬아 그물같이 엮어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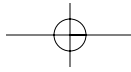
◀▲ 씨앗망태기
이듬해 심을 씨앗을 보관하던 그릇



▲ 종다래끼
작은 바구니. 다래끼보다 작으며 양쪽에 끈을 달아 허리에 차거나 멧빵을 달아 어깨에 메기도 한다.



▲ 외줄 망태기
새끼 등으로 꼬아 만든 주머니로 물건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데 쓰는 기구.



1. 짚풀공예 회원작품



임장순
67세
아산시권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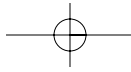
▲ 새탑새기 짚을 이용하여 엮은 새를 잡는 도구



▲ 새 집
새집은 새를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집이다. 새들은 새집 안에서 등지를 칠 수 있으며, 새들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이 있다.



▲ 땀리
짚을 일 때 머리 위에 얹어서 짚을 피는 고리 모양의 물건. 지방에 따라 또아리 · 또바리 · 또개미 · 또가리 등의 이름이 있다. 농가에서 물동이를 일 때 머리 위에 받쳐 사용하거나 농사철 들에 밭나갈 때 머리가 아프지 않게 받쳐 사용했다.



정재학
76세
아산시방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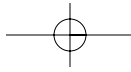
◀ 삼태기

농가에서 거름을 줄 때 사용하는 연장. 농가에서는 주로 인분과재를 섞은 퇴비를 담아 논·밭에 뿌릴 때 사용하며, 이밖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삼태기는 가는 씨리·대오리·짚·짚·새끼 등으로 엮어 만든다.



▲ 도래방석

짚으로 등글게 짠 방석. 주로 농작물을 널어 말리는 데 쓴다. 그 외에 방석으로도 사용한다. 모양을 등글게 엮어서 도래방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 짚풀공예 회원작품



신종철
81세
아산시배방북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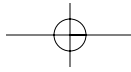
▶ 망태기
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릇. 주로 가는 새끼나 노파위로 엮거나 그물처럼 떠서 성기게 만든다



이범식
73세
아산신항면창암리



▶ 종다래끼
짚·싸리로 만든, 다래끼보다 작은 바구니로 입구가 좁고 속이 넓다. 밭에 뿌릴 씨를 모아 담는 바구니로 나물이나 고추 등을 담기도 한다.



강영식
세
아산시빙축동

▲ 둥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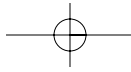
짚으로 둥글고 울이 깊게 걸어 만든 그릇. 주로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담는 데에 쓴다.



김인자
70세
아산시배방공수리

▲ 맏방석

매통이나 맏돌을 쓸 때 밑에 까는, 짚으로 만든 방석. 명석보다 작고 둥글며전이 있다.



1. 짚풀공예 회원작품



김해기
73세
아산둔포면석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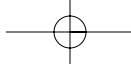
▲ 지갯등태
지계에 붙인 등태. 짚을 질 때에 등이 배기지않도록 짚으로 엮어 지계에 단다.



구달선
71세
아산시 풍기동



▲ 문어
문어과의 연체동물. 몸의 길이는 발끝까지 3미터 정도이며, 발은 여덟 개 이며 빨판이 있다. 세계적으로 분포하는데 우리나라 근해에만 약 50여 종이 알려져 있다.



▲ 여치집

보릿짚이나 밀짚을 엮어 나선형으로 만드는데 밀이 트이고 위가 막히게 엮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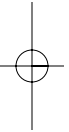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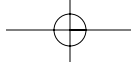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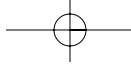
이충경
49세
아산시용화동

▼ 거미와 거미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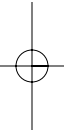
짚을 이용해 엮은 창작 거미줄 / 아산시짚풀공예공모전 은상수상작







짚풀공예 교실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짚풀문화

사진으로 보는 짚풀공예교실



▲ 온양문화원이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처음으로 시작한 2008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개강식.



▲ 실버문화학교 개강식에서 김시겸 문화원장님의 개강인사 및 강사소개가 이어짐.



2. 사진으로 보는 짚풀공예교실



▲ 실버문화학교 사업으로 진행된 짚풀공예교실 실기 강의에서 새끼 꼬기를 하는 모습.



▲ 짚풀공예의 기초가 되는 새끼 꼬기 실습 장면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짚풀문화



▲ 한원택 강사가 새끼 꼬기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새끼 꼬기 실습 후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계란꾸러미 만들기 실습 장면.



2. 사진으로 보는 짚풀공예교실



▲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어우러져 짚 엮기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



▲ 초급과정을 마치고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유작품을 만들고 있다.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짚풀문화



▲ 특성화사업으로 진행한 짚풀공예. 이제는 모두 전문가가 되어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에게 맞는 작품을 엮어가고 있다.



3. 땡땡땡 실버문화교실 수료식

땡땡땡 실버문화교실 수료식



▲ 2008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짚풀공예교실 수료식 기념사진



▲ 6개월 간 짚풀공예교실에 참가한 어르신들을 격려하는 김시점문화원장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짚풀문화



▲ 실버문화학교 수료식에서는 수료증 및 감사장과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 수료하신 어르신들이 감사의 표시로 김시겸 문화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4. 지역 및 전국 축제 체험 및 견학

지역 및 전국 축제 체험 및 견학



◀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사회 복지박람회가 열린 신정호국민관광단지에서 짚풀공예 회원들이 계란꾸러미 만들기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008 아산시 외암리 짚풀문화제에 회원들이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초가 앞에서 기념 사진 촬영



◀ 신정호국민관광단지에서 개최된 제2회 온양온천문화예술제에 참가하여 계란꾸러미 만들기 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 회원들.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짚풀문화

2008 전주 실버문화축제 체험

실버문화축제 2008 전주

Silver Culture & Arts
Festival 2008,
in Jeonju

2008. 10. 10(주) - 12(화)
전주 한옥마을 일원

주최: 전북도청, 전북도문화재단, 전주한옥마을관리소
주관: 전주한옥마을관리소, 전주한옥마을문화재단
주최: 전주한옥마을관리소, 전주한옥마을문화재단
주관: 전주한옥마을관리소, 전주한옥마을문화재단



▲ 축제 둘째 날 전주
한옥관거리 퍼레이드



▲ 축제 참가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계란꾸러
미 만들기 실습 장면



◀ 축제 둘째 날 전주
한옥관거리 퍼레이드





5. 2008 전주 실버문화축제 체험



▲ 실버문화축제 개막 축하공연



▲ 실버문화축제에 우리 문화원은 짚풀공예 작품 및 계란꾸러미 만들기 체험을 실시해 참가자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짚풀문화

짚풀생활사박물관 견학 및 체험



▲ 서울 종로에 위치한 짚풀생활사박물관 현장 견학에서 인병선관장이 관람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 짚풀생활사박물관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박물관 내부에 전시된 짚풀공예 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회원들.



▲ 현장 체험으로 계란꾸러미 만들기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 박물관 강사로부터 계란꾸러미 만들기를 실습하고 있는 모습.



▲ 계란꾸러미 만들기 체험 장면.



7. 사진으로 보는 짚과 생활

사진으로 보는 짚과 생활



▲ 초가와 어우러진 돌담길



▲ 짚으로 엮어 올린 정자와 움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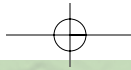
▲ 추수가 가까워진 외암민속마을 전경



▲ 추수가 끝난 후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 세운 여러 가지 장승.



▲ 초가지장터 : 외암짚풀문화제에 가설되었던 장터.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짚풀문화



▲이영 엮기: 초가의 지붕에 얹기 위하여 짚으로 이영을 엮는 모습.



▲이영갈기: 해묵은 지붕을 새로운 이영으로 단장하는 모습.



7. 사진으로 보는 짚과 생활



▲ 초가집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하여 이엉을 올려 펴고 있는 모습.



▼ 완성된 용마름 모양.



▲ 용마름: 초가 지붕 마루에 덮는 'S'자 형으로 엮은 이엉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짚풀문화



▲ 금줄: 산모가 태아를 출생하였을 때 부정한 것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이 때 새끼줄은 왼쪽으로 꼬아서 걸어 놓는다.



▲ 처마 밑에 걸려 있는 채반, 광주리라고도 함.



▲ 씨리문: 씨리를 이용하여 발을 엮듯이 엮어서 만든 출입문



7. 사진으로 보는 짚과 생활



▲ 탈곡기: 벼, 보리등의 탈곡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기계 ▼



▲ 낫으로 벼 베는 장면을 허수아비를 이용하여 연출함.



▲ 콤바인으로 추수하는 모습.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짚풀문화



▲ 제송기: 벧짚으로 새끼를 꼬는 기계. 새끼틀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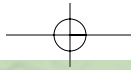


▲ 풍선기: 농기구의 한 가지로 곡식을 드릴 때 바람을 내어
검불이나 티끌을 날리는기구



▲ 탈곡기: 벼, 보리 따위의 이삭에서 낱알을 떨어내는 농기계





7. 사진으로 보는 짚과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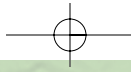
▲ 처마 밑에 걸려 있는 삼태기, 광주리, 명석 등이 가지런히 정돈돼 있다.



▲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소쿠리. 지방에 따라 소코리, 소구리라고도 한다.



▲ 광: 오늘날의 창고를 말함. 각종 농기구가 놓여 있다.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짚풀문화



▲ 초가: 한국의 대표적인 서민주택



▲ 광: 실림살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두는 곳.



▲ 부엌: 집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장소이다. 왼쪽에 채반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조리: 부엌의 생활도구로 쌀을 일거나 물기를 뺄 때 쓰였다. 왼쪽에 걸려 있는 도구.



7. 사진으로 보는 짚과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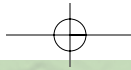
▲ 움집 :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반지하 가옥. 뗏짚으로 엮어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았다.



▶ 움집 내부 모습



▲ 울타리 : 싸리 나무로 엮어서 담 대신에 경계를 지어 막았다.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짚풀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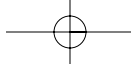
▲움집 :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반지하가옥.



▲움집 뒷모습



▲정자: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



실버문화학교 회원 명단



번호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1	이철우	남	천안시쌍용2동한우리선경A106-502	010-6418-1266
2	한원택	남	아산시인주면도흥리138	041-533-7355
3	강경희	여	아산시권곡동527-4올림파크아파트505	
4	강정희	남	아산시온천동40-31	010-2464-4411
5	구달선	여	아산시풍기동229-71주은A103/308	010-2938-3374
6	김기선	남	아산시인주면도흥리137	016-9510-2608
7	김영위	남	아산시온양5동295-16	017-433-0029
8	김인자	여	아산시배방면공수리한성팔하우스A103-702	010-6405-7415
9	김해기	남	아산시둔포면석곡리2구	010-2259-0720
10	박래훈	남	아산시인주도흥리79	011-9041-1853
11	박희수	여	아산시방축동현대A102/506	041-542-9436
12	신종철	남	아산시배방면복수리금호어울림103-905	010-7279-8846
13	이범식	남	아산시신창면창암리12-1	010-7546-8983
14	이성옥	남	아산시배방면복수리롯데캐슬110-901	016-413-8368
15	이성호	남	아산시실옥동17-234명진빌라1/302	019-409-0828
16	임장순	남	아산시권곡동527-4올림파크아파트505	011-9806-7994
17	정재학	남	아산시방축동현대A102/1202	041-549-1246
18	허중	남	아산시신창면수장리	010-6391-7552
19	홍성봉	남	아산시배방면신흥리99	017-321-2767

※ 회원명단은 2009년 2월 현재 교육 참여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온양문화원

TEL. 545-2222
FAX. 542-4444

원장	김시겸
사무국장	이일용
과장	이충경
간사	석명주
서기	이은우

짚풀논단



명석을 보며

틀어가는 말

이번에 우리 문화원에서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짚풀공예 교실을 운영하고 그수료식과 더불어 회원들의 짚풀공예 작품을 도록으로 제작발간 하게 되었다. 만든 작품들이 좀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기는 하나 마디굵은 어르신들의 정성과 땀이 배여있는 작품이라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다.

이번도록 발간을 계기로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한부분을 차지하면서 면면히 그맥을 이어온 짚풀문화가 좀더 널리 알려지고 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를 배우고자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그동안 발간된 참고서적들을 뒤적여 인용하면서 감히 몇줄적어 보았다. 특히 이 글에서는 광주민속박물관 주인택 학예 연구실장님의 『명석』考(1997. 생활용구 제1권)에서 가장 많은것을 인용했음을 미리 밝혀 주실장님의 연구에 경의를 표하는바이다.

짚과 생활

흙집 어두컴컴한 단칸방 칼칼한 産 짚 위에서 첫 울음과 함께 태어나 짚에서 식량을 얻고 짚으로 여러 가지 생활용구를 만들어 생활하다가 결국 짚으로 만든 草墳 으로 돌아갔던 우리 민족은 짚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의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에 이미 널리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벼는 부산물로 짚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벼의 재배로 가장 손쉽게 구할수 있는 재료가 되었던 짚이용의 역사 또한 이시기와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의 짚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널리 이용 되었다.

자연 그대로 연료나 퇴비, 사료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간단한 엮음 방법으로 지붕을 잇고, 거적을 엮어 막이로 사용하였으며 새끼를 꼬아 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신앙의 대상물, 놀이기구 등 생활의 전반에 걸쳐 사용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짚을 이용해 만든 생활도구 중에서도 내구성이 좋은 명석은 수공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짚문화의 정수가 아닌가 한다.

명석(網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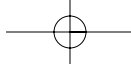
(1) 명석의 기원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명석을 언제부터 만들어 사용했을까? 개개의 생활 용구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그 연원을 따지기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조선중기 처음으로 문헌에 쓰여진 것 같다. 낭청 박지우 가도감의 공사 때문에 이덕형의 집에 갔더니 밭을 짚어진자가 덕형의 집에 들어 왔는데 뜰에다 명석을 펴고 이를 말리더라고 하였다.(조선왕조실록 선조 33년 1월 29일자)

선조 33년(1605년)의 이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약 400여년 전부터 쓰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2) 명석의 명칭

명석: 서울 경기 지방 (현재 표준말)
덕석: 전남북, 경남북 등 남부지방



떡서기: 떡서기, 떡성: 강원, 함경지방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또 특이한 것은 남부지방에서 쓰는 ‘떡석’이라는 용어가 충청지방에서는 겨울에 명석처럼 짜서 소의 등을 따뜻하게 덮어두는 언치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 개념상의 차이를 보인다. 또 민간에서는 크기가 작거나 바닥의 깔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옷방석, 도래방석, 매틀방석, 멧방석 등과 같이 방석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3) 명석의 종류

1) 명석

여느 생활용구와 마찬가지로 지역과 제작자에 따라 크기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크기는 대개 한가마니 분량의 곡물을 바닥에 깔아 건조할 수 있는 정도를 대개 기본으로 한다.

2) 도래방석

원형으로 짠 것을 도래방석이라고 하는데 도래명석, 도리방석이라고도 불리며 무말랭이, 엇기름, 고추, 잡곡 등 적은 양을 말릴 때 주로 사용한다.

3) 반떡석

크기가 작은 명석을 반떡석이라고 하는데 보

통 명석의 1/2 정도의 크기로 장방형의 형태가 많으나 정방형의 형태로 좁은 공간에서 잡곡 등 곡물 2~3과를 말릴 수 있으며 주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4) 멧방석

멧돌질 할 때 바닥에 까는데 쓰인다. 도래방석보다 작고 멧돌에서 분쇄되어 나오는 곡물가루를 받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촘촘하게 짰다.

5) 베틀방석

일반적으로 보급된 것은 아니고 어느 가정에서 고안하여 짠 것으로 보이며 베틀 한대를 놓을 수 있는 크기로 베틀 밑에 깔아 방바닥을 보호하고 바닥의 냉기를 차단하고 베틀의 요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것 같다.

(4) 제작자, 제작시기, 제작기간

명석은 머슴, 소농가, 기술자 등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주로 농한기인 겨울에 짜여졌다.

명석을 짜는 일은 매우 힘이 들고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쿠리나 먹서리 등으로 훈련이 된 숙련된 일꾼들이 7~10일은 걸려야 한 닢을 짤 수 있는데 이러한 명석도 품질에 따라 상품과 하품으로 나뉜다. 상품은 날줄과 씨줄 간격이 촘촘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얇고 가벼운 것이고 씨줄을 굵게 잡아 명석 표면의 골이 깊고 무게도 무거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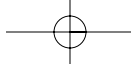
4. 멧는말

짚으로 만든 생활용구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짧은 지식으로 이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단지 하나하나 살펴 볼 때 마다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가 새롭게 느껴지고 그 과학적임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명석만 보더라도 흡수성과 햇볕의 보존 능력이 뛰어나 건조용구로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곡물을 망사나 비닐에 말리면 일사광과 지면의 복사열에 의해 쉽게 마르지만 알갱이가 부러지고 갈라지며 수분의 함량이 급격히 떨어져 품질이 저하된다. 그러나 명석은 복사열을 차단하여 은근히 건조됨으로써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작지만 소중한 짚풀문화! 이를 지키고 더욱 알차게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또 하나의 할 일이다.

2009.2
온양문화원
사무국장 이일용



책을 엮으며

인생 한 줄에 회한 한 줄...

가닥을 엮어가는 어르신들 손에서
인생의 질곡과 무상함을 연륜으로 이겨내는
삶의 지혜를 느낍니다.

정성스럽게 꼴골을 엮어내는 손에서
젊은 세대가 느끼지 못한 인생의 진지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살아가는 게 이런 것이라고...
지루한 듯 하지만 그것에서 재미를 찾고
보람을 찾는 것도 인생이라고...

짚풀을 드리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